전법 일기

관객과 함께 호흡한 인형극
이심전심으로 지혜 전하다

오래 전부터 발원해 오는 것이 있다. 둘 아닌 도리를 누구나 공기처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는 '일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통해서 벗어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마음내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슴 깊이 품고 지내다 보니 도량 밖에서도 둘 아닌 도리를 전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올해 10월 초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욘드 한글 앤 K컬처 페스티벌' 메인 무대 강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고 맛있게 먹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인형극을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쉽게 알려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근본인 바다마음, 근본과 몸에 중계자 역할을 하는 마음 운전수, 몸인 물방울 친구가 탄생했다. 둘 아닌 도리를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빛나는 나의 하루, 자유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하기라는 3가지 주제로 인형극을 풀어나갔다.

빛나는 나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매일 세 친구와 노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밥 먹는 것을 빼먹지 않듯이 하루 일과에서 빼먹지 않고 꼭 지키는 우선적인 일이다. 먼저 마음 운전수는 몸에게 '너는 오늘 ~~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코치를 한다. 그 다음 마음 운전수는 바다마음에게 '모두에게 이익한 행동을 하게 해. 그리고 너의 지혜로운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해' 라고 코치를 한다. 그런 후 바다마음에서 뭐라고 알려주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루열기를 인형극으로 보여드리겠다.

마음 운전수: (몸을 향해서) 너는 오늘 벡스코 무대에 가서 인형극으로 강의를 할 거야.

(바다마음을 향해서) 모두에게 이익하게 해. 지혜로운 바다마음을 따라가게 해.

마음 운전수: (바다마음에 귀를 대고 바다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바다마음: 오늘 인형극을 할 때 객석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렴. 그리고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호흡하는 둥근 무대를 완성해 보렴.

몸: O.K! 지혜롭게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런 놀이를 바탕으로 그날 인형극은 객석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객석에 계셨던 분께서 "마음을 근본으로 되돌리면 저만 바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아이도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형극으로 보여주시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와 제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일어났어요"라는 피드백을 줬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는 빛이 난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송마나의 **시절인연**

독서로 지장보살을 만나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까마득하다. 언제부터 스마트폰이 시도 때도 없이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의 자아(自我)는 무분별하게 흘러드는 정보의 바다에 잠겨 서서히 익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서는 정신에 파문을 일으킨다. 물 위로 뛰어오른 물고기처럼 솟구치는 언어는 우리를 기습하고,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변모시킨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새로운 빛을 띠게 한다.

독서는 날씨마저 바꾼다고 한다. 독일의 작은 마을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하이데거는 폭풍이 치고 눈이 오면 그때가 철학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인간은 폭우로부터 가뭄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시커먼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의 청명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날씨는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햇살이 비쳐야하고, 가뭄 속에서도 빗소리가 들려야 한다.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여름 내내 불타올랐던 뜨거운 날씨를 바꾸려고 하이데거의 책을 읽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출간한 이후,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프라이부르크대학 겨울학기 강의를 했다. 그는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온 그리스 철학, 그중에서도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로 강의를 풀어 나갔다.



그림 · 최주현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온몸이 결박되어 동굴 앞쪽 벽면만을 볼 수 있다. 죄수들 뒤로는 담장이 있고, 그 위로 사람과 동물과 사물의 상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의 그림자가 앞쪽 벽면에 비치고 있다. 그 그림자는 동굴 위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받아 생긴 것이다. 죄수들은 평생 포박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참된 것, 진짜라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동굴에 결박된 죄수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 현실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죄수 중 한 사람이 풀려나 담장 위로 올라와 실체를 보고, 빛나는 불빛을 보게 된다. 풀려난 죄수는 불빛을 보고 눈이 부셔 고통스러워하며 실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 진리가 드러나 있음에도 기뻐하기는커녕 그림자를 여전히 진리라고 믿고 있다. 고뇌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몸이 해방되었다고 정신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는 차츰 빛에 익숙해져 마침내 태양을 쳐다보고, 실제 사물들을 바라본다. 결단을 통한 본래적인 실존을 획득한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동굴 안에 결박되어 있는 동료들이 불쌍하여 견딜 수 없게 된다.

자유로운 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비-진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동굴 안 사람들은 돌아온 그를 비웃는다.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눈이 상했다고, 그가 동료들의 쇠사슬을 풀어 위로 데려간다면 죽여 버릴 것이라고 으르렁거린다.

나는 '동굴의 비유',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동굴로 다시 들어간 그가 바로 지장보살이 아닌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지장보살.

독서를 통하여 새롭게 만났던 지장보살의 보살행, 폭염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작가〉

기자칼럼

소외없는 세상을 위한 자비의 가르침

지난 2021년 12월 10일,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30년간 몸바쳐 일한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길에서 1000일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 완화와 일상회복으로 세종호텔의 투숙객이 객실 80% 이상을 웃돌며 경영난은 회복된 듯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사용자(세종호텔)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은 이해관계에 따른 법률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정리해고 후 10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잊히지 않기 위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종교계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2023년 9월과 2024년 10월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한 바 있다. 사노위는 오체투지와 도보행진을 진행하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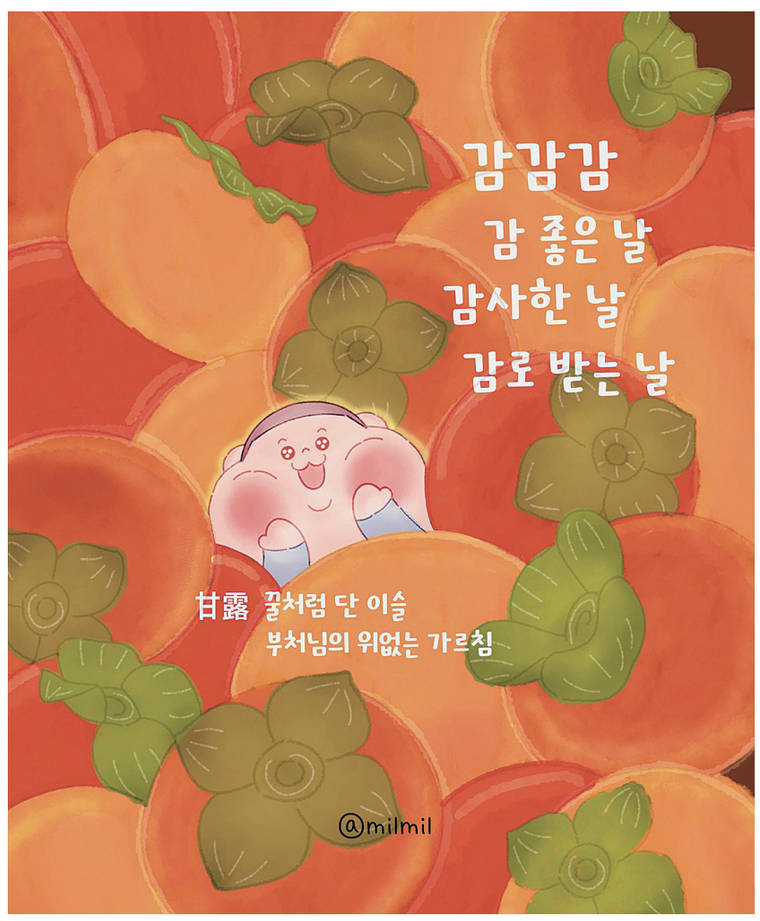
현장에서 사노위는 "해고노동자를 만든 코로나19 시대가 지났음에도 이들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길에 머물러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사측 편에 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1000일, 약 2년 7개월 동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길바닥에서 목소리 높였다. 사노위 역시 이들과 함께 존재를 알리며 복직을 촉구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이란 가르침을 등불 삼은 불자라면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평등한 세상을 일궈야 하지 않을까.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